

中 불교, 생활 변화까지 이끈다



조환기 교수의 중국 현대 불교의 흐름
前 동명대 겸임교수

얼마 전 중국 상하이의 모 불교 단체를 다녀왔다. 중국 대륙의 한 불교거사를 연구하는 단체였기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자료나 좀 얻어오겠다는 심산으로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막상 방문하고 보니 이들의 신앙활동은 필자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승려와 거사들(중국에서 거사는 모든 재가불자를 통칭하는 말이다)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일차간결하여 채식은 하고 정정제물을 수지하며 굳건한 수행으로 다져진 불교모임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이 불교 단체가 매우 특수한 집단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약 10년 전 베이징 교외의 한 사찰의 법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데에 다 바람까지 불어서 살을 에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추운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까 싶지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장 거사는 불자로 수행 생활을 하기 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계를 받으면 지키지 못할까 염려되어 약 2년간 마음과 몸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계를 받았고 그 후로는 줄곧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수행 모습



중국 태호의 서풍선사의 전경. 현대식으로 단장된 사찰은 중국 불교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 단지 장 거사뿐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불자들도 같았다. 이들 중에는 스님을 따라 시안(西安)에서 라싸(Lhasa)까지 3개월간 도보 구도여행을 하기도 하고 매년 삼보일배를 하며 수시로 자선활동을 한다고도 했다.

돌아보면 문화대혁명 때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구호 아래 불교는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던가? 동한(東漢) 초기 루양(洛陽)에 세워졌던 백마사(白馬寺)는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로 중국 불교의 발상지였다. 문화대혁명 당시 백마사 옆에 있던 생산부대의 공산당 간부가 농민들을 거느리고 백마사에 가서 '불교를 비판하고 사찰을 때려 부수는' '혁명'을 했던 이야기는 중국 현대 불교가 입은 참상을 예로 들 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이다. 1966년 5월 혁명을 하다가 백마사에 진격한 이들 홍위병들은 백

마사에 들어와 2천여 년 전 인도 고승이 가지고 온 패엽경을 불태우고, 1천 년 전 요나라 때 만들어진 18나한과 희귀한 보물 옥마(玉馬), 불상 등을 모조리 때려 부수었다.

또한 근대 중국의 대표적 고승인 허운(虛雲, 1840~1959) 스님이 홍위병들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일 등도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일부 정치가의 술수에 절고 경험없는 혈기방자한 젊은 홍위병이 결탁하여 수천년 중국불교문화를 송두리 채 부순 아픈 역사인 것이다. 몇 해 전에 이슬람이 바미안석불을 폭파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중국 대륙 불교의 발전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중국인 정신생활 조

제이다. 둘째, 다양한 불교용품의 개발과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하문국제불사용품박람회(2015년 봄부터 불교 가을 두 차례로 확대하였다. 올해 4월에 개최한 춘계박람회부터는 '사문국제건강용품박람회(廈門國際健康產業展覽會)'도 함께 개최하여 불교와 웰빙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 참가한 국내의 약 1,100개의 기업체가 총 5천 800여 전시 부스를 열었다.

셋째, 승려나 수준 높은 거사들이 기업가와 청년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의 유명 기업가들 중 60%가 불교를 믿는다는 통계가 있다. 수행이 뛰어난 스님들은 각종 기업가 포럼에 초대되기도 하고 '기업가 영혼치로사(企業家心靈導師)', '참선수행지도사(企業家禪修引導者)'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불교의 마음 수행을 경영활동에 적용시키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법문으로 유명한 스타 스님이 속속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법문과 상담뿐 아니라 출판을 통해 청년 불자와 대면한다. 물론 불사 출판 중 대부분은 경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경서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출판계는 재테크, 섹스를 이어 종교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중국 현대 불교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중국 불교는 엄청난 성장기도를 달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계율을 지키고 불심으로 살아가는 스님과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한해를 마무리하며

12월에 접어들면 사람은 누구나 무상함을 느낄 터이다. 세월이 빠르고 삶이 덧없음을 새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무 살까지는 세월이 그리도 더디 하지만 서른 살을 넘기고 보면, 세월은 날아서 간다.

1년동안 거두어들이 수확물을 타작해 보면, 빈 쪽정이 짙고 알곡을 만나기란 드물 터이다. 늘어난 주름과 흰 머리카락처럼 세월은 허무의 그림자만 남기고 몇 점 바람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약속과 희망도 마른모래를 쥐고 있던 주먹처럼 술술 빠져나가 끝내는 빈주먹 뿐이다. 가슴 찌릿한 몇 점의 눈물방울이 진한 후회로 남는다.

집착이 병인줄 알면서도 모이고 당겨온 소유욕이 마른 갈대의 서걱이는 소리로 쓸쓸함을 더해준다. 베풀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의 구호로만 그친 채, 부끄러움을 더해준다. 글썽,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허무하다.

개운하게 마무리 된 것은 찾기 어렵고, 생명의 무게만큼이나 짙긴 욕구가 아직도 진행형으로 목마름을 더해준다. 잎을 떨구고

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는 항시 드러나 있다. 물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이웃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날려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열려있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면 새해의 정월도 마감의 12월도 없게 되는 것이다.

본래,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지 않듯, 변두리나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선지식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선지식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선지식과 중생의 차이는 열린 마음 쪽보다 집착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처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듯, 선지식 또한 마음이 열린 깨달은 사람이다.

경전과 어록의 어떠한 내용을 몰어도 막히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드러남과 감춤도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작과 꾸밈이 없다.

명예와 재색(財色)에서도 자유인이고 생활에서도 집착을 벗어버린 자연인이다. 누

살아있음은 그 자체가 기적 이제 새 희망의 군불 지피자

서 있는 나목(裸木)처럼 겹겹이 껴있는 허울의 옷을 다 벗고 싶다. 손끝이 시리고 뼈가 떨리는 것은 추위 탓만이 아닐 터이다. 남은 삶의 길이가 얼마일지는 모를 일이나, 순수하고 솔직한, 정직한 사람이고 싶다.

드러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별거벗은 임금님처럼 주위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가난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고 싶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빛과 어둠이 들어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만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조작과 꾸밈을 벗어버린 해탈자의 삶을 누리며 노래하고 싶다.

더러는 가슴이 비어 허전하하고 하고, 더러는 목마름이 더해 몸살을 앓을지라도 험뎠이는 모습에서 부처를 찾고 흔들리는 생활에서 보살을 만나고 싶다. 살다보면, 경합이 경전속의 가르침임을 알게 된다. 살다 보면, 육도윤회가 삶의 현장에서 거듭 겪게 되는 당생윤회(當生輪廻)임을 알게 된다. 하루의 삶속에서 천사도 악마도 만나게 된다. 부처와 보살과도 오늘의 현장에서 헤어 지지만 그 소중한 인연을 가볍게 여길 따름이다.

살은 그대로 <화엄경>이자 <법화경>이다. 진리는 숨어있거나 높은 곳에 매달려있

구를 만나도 편히 대하고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의 무늬가 떠다니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들어 아닌 하나임을 균형과 조화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실천한다. 어둠과 밝음에서의 몸짓이 다르지 않고, 뚜렷하고 당당하며 비어있으나 가득하다. 그러나 땀이 용이 될 때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사람이 부처 될 때,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화도 낼 줄 알고, 웃스게 웃으며 즐길 줄 안다. 다만,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을 뿐이다.

자, 이쯤에서 눈높이의 방향을 연말의 허무의 그림자 쪽으로 옮겨보자. 겨울은 추운 계절인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음 추위는 더욱 쓸쓸스럽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 마음의 정원에서는 꽃이 시들고 찬 바람이 인다.

싸락눈이라도 쌓이듯 돌레를 살펴봐도 마음 나눌 진정한 의미의 참땀이 없다. 타작하여 까불어 봐도 빈 쪽정이뿐인 삶이 고단한 그림자로 누워있다.

그래도 너와 나,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자 기적이다.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슴 펴고, 주먹 나팔이라도 불어보자. 새 출발, 새 다짐, 새 희망에 군불을 지피자. 징검다리,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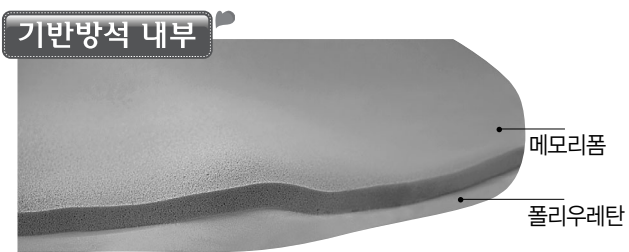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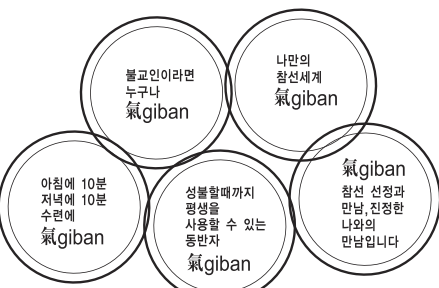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www.hyunbulshop.com